

## 내가 다시 생각할수있게 만드는 영화 ‘알라딘’

6-8-13-안채흔

난 학교에서 영화 ‘알라딘’ 을 보았다.알라딘의 내용은 알라딘이 신비한 램프를 발견해서 그 뒤에 위기,행복 등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내용이다.이 영화는 디즈니 만화였지만 2019년에 실사판으로 만들었다.

내가 고른 인물은 알라딘이다.알라딘의 성격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베품목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그리고 알라딘은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견한다.

알라딘 영화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알라딘이 알리왕자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내 경험과 비슷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알리왕자의 진짜신분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나도 알라딘처럼 주변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난다.내가 만약 알라딘의 상황이었다면 조용히 사실대로 말했을것같다.왜냐하면 계속 신분을 속이면 나중에 더 큰일날수도 있을거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알라딘과 자스민이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나한테 만약 마법 양탄자가 있다면 맨날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닐것같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는게 감동적이었다.왜냐하면 알라딘이 더 원하는 소원이 있을수도있었는데 자기친구를 위해 마지막 소원을 써주는게 진정한 우정같았다.나 같으면 내 소원을 위해 마지막 소원을 쓰지않을것같다.영화를 보는데도 알라딘과 지니가 서로를 아껴주는게 정말 잘 느껴졌다.지니와 알라딘이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된 이유는 결국 마술램프 덕분인거같았다.

이 영화는 정말 현실성있게 잘 만든것같다.난 원래 모험,판타지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알라딘 만큼은 중독성있고 빠져들 정도로 재밌게 본것같다.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노래도 정말 좋은것같다.배우들도 연기를 잘했고 그냥 완벽한 영화다.특히 끝날때 나오는 활기찬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1번더 볼것같다.